

SND USA 샤든과 플로리다 준회원들의 성모 방문 축일 경축



2022년 5월 22일, 샤든 준회원들은 샤든 본원 2층의 살루스 수녀들을 초대하여 성모님께 존경을 표하도록 했습니다. 무척이나 성공적인 이번 행사를 위해 준회원들은 휠체어를 밀고,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줄을 지어 성당으로 들어가도록 도움을 주며 수녀들을 개별적으로 부축해 주었습니다. 수녀 한 명 한 명과 준회원들은 성모상 앞 꽃병에 봄꽃을 꽂은 다음, 제대를 둘러싼 큰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방문 축일의 축하인 “마리아의 노래”라는 주제로 계획된 존경의 표시는 성가, 성경, 시, 로레토 성모님 호칭 기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작성한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바치는 축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과와 대화를 즐기기 위해 전원이 모였습니다. 행사 주관자들은 수녀들과 준회원들의 상호작용, 함께 하는 사교적인 시간이, 작년에 행한 전국 설문 조사에서 준회원들의 첫 번째 요청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그 소망을 충족해 주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의 아름다움과 깊은 영성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 그리고 매년 달력에 이 행사가 포함되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플로리다 준회원들은 클리어워터와 윈터 가든에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방문하는 동안 서로의 동반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신시아 디제트와 수잔 마리 레이넷 수녀는 준회원 축일에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잭슨빌에서 윈터가든까지 150 마일을 달려왔습니다. 전례 후에는 함께 정찬을 즐겼습니다. 유행병의 규제로 제한되었던 자선 활동을 내년에 포함하기 위해 계획 중입니다.